

中語中文學 教育의 當面課題

宋 昌 基

(國民大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1. 序

漢字 文化圈에 속해 있는 우리는 1446년 우리의 한글이 創製되기 이전은 물론이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漢字를 우리의 文字와 같이 常用해 오고 있다. 學界의 提言과 국민들 輿論을 좇아 한글 전용을 정부 施策에 반영해 보기도 했으나 1974년 中·高校에 한때 폐지했던 漢文교육을 부활시켰고, 신문·잡지·학술 서적 등에서 여전히 漢字를 한글에 混用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漢字는 英·獨·佛語와 같은 外國文字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文字로 익혀 사용되어 온 것임에 틀림없다. 아직도 누가 만들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漢字는 수많은 先賢들의 微智에 힘입어 부단히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글일 뿐 아니라 의미를 상징하는 表意文字이기 때문에 말과 글이 그 발전의 속도와 길을 달리 하였으므로 우리가 빌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적어 온 이 漢字를 우리 글이라 해서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쓰는 常用漢字를 익히 알고 쓰면서도 한 마디 漢語(中國話)를 말할 수 없는 사실이 그 도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에서 中語中文學科를 新設하여 文學과 語學을 분리하여 교육하기 이전의 漢文은 오로지 學問을 위한 文字로 學習했을

뿐 말하기 위한 漢語로서 배우지 않았던 것이다. 말은 時代와 地域을 따라 變形되어 왔기에 오늘날 날처럼 傳播媒體가 발달되고 교육시설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같은 中國 國土 안에서조차 地域을 서로 달리하는 사람들 상호간에는 그 方言이 심하여 意思疎通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이 점이 表意文字의 특색인 동시에 長短點인 것이다. 실제로 中國語를 잘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漢文古典을 잘 읽고 解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우리 漢學에 達通한 사람이라 해서 中國語를 잘 말하고 白話文(口語體 中國文章)을 읽어 解讀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닌 것이다. 文字와 言語가 時代의 經過를 따라 현저하게 分離·발전되었기에 言語文字生活에 적잖은 不便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近世 胡適 등이 글은 반드시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白話文 사용을 提唱하여 文學革命을 主導함으로써 이제는 白話文이 現代 中文이 되어 日常言語를 자유롭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게 이른 것이다.

그동안 文字學習에만 置重했던 우리 나라에서도 國內外 與件에 副應하여 中國語 學習에 크게 比重을 두고 1970년대부터 各大學에서는 다투어 中語中文學科를 新設하여 왔는데, 오늘날 이미 38個 大學에 併設된 7個 夜間 學科를 포함 45個 學科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 해 입학생수는 졸업자 2,000여 명에 이르고, 현재 재학생수는 6,000여 명, 매년 졸업생수만도 1,300명을 넘어서고 있다. 多變하는 국제 경제에 대응하고자 정책의 배려로 이룩된 이 같은 畧의 急增에 따른 人力의 需給問題, 新設學科에 따르는 有資格 教授의 확보, 교육·교재 및 시설문제 등은 中語中文學科가 풀어야 할 시급하고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과 같이 現況·問題點 및 改善方案 등을 略述함으로써 中語中文學 教育者와 當局의 自省과 對策 수립에 轉機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現 況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45년 서울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던 中語中文學科는 거의 10년 동안 唯一한 學科로서 부단히 졸업생을 배출해 오다가 1954년 外國語大學에 中國語科가, 1955년에는 成均館大學에 中語中文科가 개설되었다. 그후 또한 10년이 지나서야 慶熙大 外國語教育科 속에 中語專攻으로 신설되었고, 이로부터 7년이 지난 1972년 淑大·高大·檀大 등을 선두로 하여 이듬해 延大, 1974년에는 全南大 外國語教育科(中語專攻), 1975년 淸州大, 1976년 嶺南大 순으로 매년 1個科가 新設되다가 1978년 忠南大가, 그리고 1979년에는 釜山大·慶北大·全南大·全北大·慶尙大 등 5個 國立大學과 私立 啓明大가 동시에 개설하였다. 1980년 國民大는 既存 漢文科를 中語中文科로 改編하였고 1983년까지에는 漢陽大·建國大·慶熙大·聖心女大·誠信女大·明知大·中央大 外大·高大 文理大(조치원)·外大 分校와 夜間部 등에 新設 또는 增設되어 이미 45個 學科를 헤아리게 되었다. 한 科 모집 정원은 최소 30명에서 100명까지로, 전국에서 한 해 2,000여 명의 학생들이 中國語와 中國文學를 專攻으로 택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1~2년이 지나서는 중어중문학도가 1만 명을 넘게 될 것이며 한 해 졸업생수도 2,000여 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중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은 이 대학생수 이외에 4개 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 K.B.S. 교육방송, 사설 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인원을 합할 때 엄청난 수가 된다.

大學院의 進學과 就業의 門은 이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은 실정이다. 博士課程이 설치된 大學은 서울大·高大·延大·成大·外大 등이고 碩士課程은 博士과정 설치 대학을 제외하고 淑大·檀大·嶺南大·淸州大·忠南大·國民大·明知大 등에만 개설되어 있어 國內 進學의 길이 쉽지 않은데다 自由中國의 留學길도 외국인 입학은 총 모집인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등의 많은 制約을 받고 있다. 또한 就業의 길도 아직은 탁트인 곳이 없어 가까운 장래 國際情勢의 變動에 따른 活路에 은근한 期待를 하고 있을 뿐이다. 설사 이 은근한 기대가 2~3년 이내에 실현된다고 해도 대학 졸업생들의 活用面을 評價할 때 아직까지는 所期의 語學實力을 培養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要因은 教育施設·教材 및 教授方法·資格 교수 부족 등 여러 가치를 들 수 있겠고 여기에 더하여 入試難이 가져 온 「適性과 趣向을 무시한 入學安全爲主의 志願」이 學習意慾을 半減시킨 理由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中語中文學科 4年 정규 졸업자라 할지라도 中高校 漢文教師로 나갈 수 있는 漢文教師 資格도 획득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적잖은 학생들은 專攻과 無關한 일반기업 취직을 위하여 필요한 他科目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업체에 따라 전형 고려 대상에서 中語中文科 學生을 除外시키는 경우가 많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教育投資라 아니 할 수 없겠다.

Ⅲ. 問題點

上述한 바와 같이, 30년 가까이 3개 대학에서만 교육해 오던 中語中文學 教育은 1970년대에 서부터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學科 개설의 畧의 팽창은 정미가 안 된 교육 여건 아래서 우수 교수의 확보난·교육 부실·교재·교육자료 부족·시설 부족·적성과 자질을 무시한 무작정 지원 입학·졸업 후 실업자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 優秀教授 확보

학문과 높은 인격을 겸비한 教授를 확보한다는 것은 비단 新設 學科에서만의 절실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갑자기 大量으로 신설된 中語中文科에 있어서 이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全國 곳곳에서 新設된 學科의 기초작업을 통하여, 學科의 敎科目 등 교육의 기풍을 확립시킬 수 있는 교수 확보를 위하여 서울로 自由中國으로 초빙 대상자를 교섭하려는 발걸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까닭은 현재 修學中에 있는 사람은 적지 않으나 고루 資格을 갖춘 教授는 이미 各大學에서 자리를 잡고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초빙하는 教授는 대부분 博士課程을 밟고 있거나 碩士學位를 갖 취득한 젊은 學徒들이어서 教育의 젊은 폐기와 정열은 높일 수 있으나 경험과 학문 수련의 부족으로 깊은 理論 教育이 어렵고 또한 留學 2~3년 정도로는 中國語의 정확한 發音 및 聲調 지도 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新設科를 맡아 運營하고 교육하기에는 힘겨운 事例가 적잖은 現實인 것이다. 부단한 研磨로 젊은 學者들의 大成을 期待할 수밖에 없는 與件이다. 더구나 광범한 중국문학 분야에서 전공별로 교수를 초빙할 수는 없는 오늘의 실정이다. 이 모든 원인은 그간의 中語中文學 교육이 學者를 培養하기에 不充實했고 社會 與件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2. 學科 志願과 학생 資質 및 適性

대학 입학 때의 학과 지원은 일생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轉機가 된다 하겠다. 내게는 자기의 資質과 適性에 따라 學科를 선택하고 그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직업 또한 전공분야와 有關한 쪽을 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좁아진 大學 入學門 탓으로 우선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눈치작전에 의한 임의 선택에서 때로는 특정 新設科가 어느 大學 分校 ○○新設科가 志願率 ○○:1로 全國 最高가 되었던 지난날 입학 시기의 신문보도를 기억한다. 이렇게 하여 입학된 학생들이 반드시 각자의 자질과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대학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보람 없고 무의미하게 흘러 보내기 쉬운 것 또한 사실이다. 졸업생 선배가 없는 新設科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막연한 기대는 학과 선택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中語中文學科가 대폭 신설되어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적성에 안 맞아 轉科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지 않았고, 취향에 안 맞아 專攻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卒業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볼 때 앞으로 志願 학생들을 위한 學科 紹介가 보다 체계 있게 弘報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能率的인 教育效果를 위해서도 資質과 취향에 안 맞는 학생들의 入學은 中止되어야겠다.

3. 教育課程과 教育方法

中語中文學科의 教育課程은 中文學과 中國語學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것이 우리 教育現實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各大學의 편성을 보면 거의가 大同小異하여 어느 특별한 配慮 없이 語文學을 適意配分한 인상이다. 教育方法 또한 學生들의 語學實力과 教材 및 教育資料 不充分, 학생수의 過多 등을 이유로 文學은 在來의 注入式, 語學 教育도 實習을 併行한 教授爲主의 授業의 傾向을 보여준다. 또한 履修學點에 있어서도 學生 各自의 選擇의 幅을 넓혀 주어 必須科目을 줄이고 選擇科目을 늘려서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 시내 몇 개의 종합대학 教育課程을 종합하여 유사한 과목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初級中語 ○ 中級中語 ○ 高級中語
- 中語會話 ○ 中語作文 ○ 中語文法
- 中國語演習 ○ 時事中國語 ○ 實用中國語
- 中國文字學 ○ 中國文學概論
- 中國文學史 ○ 詩經·楚辭 ○ 唐宋詩選
- 明清小說 ○ 經書講讀 ○ 現代文選
- 中國戲曲 ○ 詞曲

이러한 科目들은 自由中國의 大學 中文科의 教育課程에 비하여 經典의 諸子書, 예를 들면, 莊子·老子·荀子·孟子 등, 文字學에서 聲韻學·訓詁學 및 版本學·目錄學·校勘學·經學史·思想史 등이 빠져 있는 셈이다. 各大學 專任教授

들의 專攻과 講義 能力에 따라 科目의 比重을 줄여서 편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進學과 就業

이미 新設된 全國 各 大學의 中語中文學科에서 일제히 졸업생을 배출하게 될 때 그 수는 매년 2,000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 중 10%의 학생만이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할 때 그 숫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석사과정 이상 개설된 대학이 현재로서는 10여 개 대학에 불과해서 3분의 1 정도의 수용능력이 있을 뿐이고 수용한다고 해도 참다운 논문지도를 받기에는 우수교수의 부족으로 소기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진학 희망자들이 자유중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1983년부터 한 과 모집정원의 5분의 1를 초과하여 외국 학생을 뽑을 수 없다는 그곳 문교부 규정이 제정되어 교착해야 20~30명 정도나 유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획된대로 서울대학교 등이 조속히 대학원 대학으로 전환되지 않고는 진학희망자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생들에 대한 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대학증원과 정세에 편승하여 일시에 대폭 신설된 中語中文學科 졸업생들의 인력수급계획은 마땅히 사전에 기획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훌륭한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문교당국은 增設 혹은 新設科에 대하여는 그 學生數와 時期, 확보된 教授의 資格과 人員數를 考慮했어야 했다.

Ⅶ. 改善方案

이상 지적된 몇 가지 中語中文學 교육상의 문제점을 改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方法 등을 다음에 열거해 본다.

1. 教授 資質 향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學問과 人格을 겸비한 우수 교수의 확보이다. 資格을 갖춘 教授의 확보난은 中語中文學科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1980년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自由中國 정부의 配慮로 中語中文學科의 助教

이상 助教授 이하로서 계속 中國語文學 교육과 연구에 종사할 사람 10명을 往復旅費를 포함 每月 상당한 장학금을 지불하는 좋은 조건으로 自由中國 各 大學校 大學院에 研修 特혜를 주었다. 近年 個人的으로도 現職 教授들의 博士過程 履修를 위한 留學이나 短期 研修가 활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急增되는 中語中文學徒의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力不足인 실정이다. 教授 스스로의 資質 向上과 대학원 재학생들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일부 대학에서 교환교수 방법을 통하여 中國 教授들을 초빙하고 있으나 우리 말을 할 수 없는 언어장벽으로 극히 우수한 일부 상급학년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理論 강의는 완전 理解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所期의 教育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中語會話 등에서 現地 常用語와 發音을 익히며 말하고 듣는 習慣을 길러 주는데 比重을 둘 수밖에 없다. 中國人 교수들의 심오한 學問內容을 잘 듣고 배울 수 없는 것은 큰 損失이라 할 것이다. 1·2학년 때 語學 교육에 치중하여 3·4학년 때는 中國語로 하는 강의를 受講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시도하여 볼 만한 方法이라 생각된다.

招聘 中國人 교수들과의 공동 연구와 學術討論을 통하여 中文學 교수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많은 後進들의 전진한 學問研究와 社會에서 活用될 수 있는 實用性을 고려하고 文學과 語學的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는 스스로 研究에 분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活用할 수 있는 中國語 學習지도는 聲調와 輕聲, 慣用句 사용법 등에 철저해야 하고 반복 습관을 통하여 生活化시킬 수 있도록 教育者 자신이 發音과 用法에 먼저 투철하여야 한다. 言語는 習慣의이어서 學習 初期에 잘못 익히면 바르게 교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聲調 차이로 同音異義를 표현하고 있는 中國語에 있어서 이 점은 특히 注意할 문제이다.

2. 學科志願 학생의 資質과 適性

大學의 學科 지원은 한 사람의 一生을 크게 좌우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앞의 입학에만 급급하여 入學 安全圈

을 찾아 왕왕 自身の 資質과 適性을 무시하고 지원하는 경우를 본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 순수한 學問을 傳授하는 한편 社會를 指導할 最高의 知識人으로서 지녀야 할 教養과 知識을 習得케 하며 有關專攻分野에서 活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도 強化해야 한다.

그 어느 分野보다 부단한 끈기와 才能과 努力이 要求되는 中國古典의 研究와 銳利한 辨韻學的 感覺과 練習을 必要로 하는 中國語學習에 자신의 能力과 資質을 評價해 봄은 물론, 이것을 專攻하여 잠차 어떤 分野에 종사하며 일생을 바칠 것인지 확고한 目標설정이 先行될 때 志願할 것이고, 일단 入學後에는 스승에게 일생을 맡기고 정진하며 스승은 제자의 일생을 보장하는 獨逸과 같은 徒弟관계가 이루어져야 學問은 大成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學點取得에 급급하고, 대학 4년 동안 강의실 밖에서는 스승과 이렇다할 對話나 접촉 없이 갈리고 마는 師弟관계에서는 研究意慾이 半減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學問도 비슷하겠거니와 中國語文學에 있어서는 어느 大學 졸업생이기보다는 어느 스승의 제자됨이 자랑스러운 風土가 조성될 때 學問은 發展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大學들도 大學 자체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는 동시에 各科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學派를 형성하면서 研究實績을 쌓아 가야 할 때일 것이다. 이렇게 될 때 學科의 志願에서도 合格단을 위한 비슷한 等級點數의 學生들만이 몰려오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資質이 있고 才能이 있는 弟子를 발굴하여 체계 있는 지도를 함으로써 특정분야의 專門家를 培養하고 스승과 제자들이 공동 연구팀을 형성하여 부단히 연구를 계속시키는 일은 교수의 사명이며 보람인 것이다. 하루 속히 어느 大學 어느 科를 선택하는 평가기준에서 어느 大學 어느 科 어느 教授(혹은 研究팀)를 선택하는 專攻別 入學志願이 될 때 차츰 學校差와 一流만 찾는 固疾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專攻과 學問이 細分化되고 있기는 해도 個人의 私學으로 3천 제자를 거

느린 옛 孔子의 人格의 教育方法과 높은 師道가 아쉬운 現實인 것이다. 大學卒業에 필요한 資格取得을 위하거나 處世와 生活의 方便을 주는 大學教育이 아닌 純粹한 眞理探究와 人間完成이라는 學問 殿堂으로서의 任務를 되찾는 大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될 때 물을 따라 楫息하는 물고기처럼 失天의 體質과 技能에 맞는 곳을 찾는 學生들의 學科志願이 될 것은 明白한 일이다.

3. 實用과 特性教育

현재 전국 45개 學科의 특성을 살펴보면 外國語大·中央大 師大 등 몇 개 大學에서 中國語教育에 注力하고 있으며 나머지 學科는 모두 中語 中文學科로서 語學과 文學을 均配하고 있는 실정이다. 教科目은 모두가 大同小異하고 利用되는 教材도 각양으로 文法體系나 發音符號까지도 統一되지 못하고 있다. 外形上 나타난 教育課程에서 서울대의 경우는 中國古典文學 분야에 置重하는 듯하고, 成均館大는 現代文學分野를, 嶺南大에서는 韓國漢文學 분야를 重視하는 것 같다. 이는 다분히 學科所屬 教授들의 專攻과 상당한 連關性을 찾아 볼 수 있다. 아뵤든 이 정도의 특색만이라도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가뜰이나 不足한 資格教授, 未備한 學術資料 및 教育施設下에서 두뿔한 教育目標 없이 中語學과 中文學 분야를 배분하고 몇 가지 필수적인 教科目을 開設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크게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개설하고 있는 분야별 專攻교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新設學科일수록 미교적 두드러지고 있으며 大學院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하루 빨리 各 大學 學科別로 어느 特定 분야를 치중하는 특색 있는 教科目을 편성 집중 교육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우리 현실에 맞는 중국어문학 교육이 실시되어야겠다.

중국문학에 있어서는 한편 한국 자체의 순문학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 전통의 經典속의 漢字 用法과는 變質되어 쓰여 온 우리 漢文學作品도 比重을 두어 研究함으로써 우리 先賢의 思想과 文學을 깊이 理解시켜야 할 것이다.

현대 표준중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中文에 注

音符號나 併音 혹은 웨이드(Wade)식 표기로 발음을 달아 익히는 방법보다 우리 말로 발음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歐美各國에서 採擇하는 萬國發音符號만으로 먼저 中國語를 익히고 다음 단계로 中文을 함께 記憶시키는 方法도 試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中國語를 배우면서 發音과 聲調에 注意하게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글자화된 漢字의 우리 발음과 뜻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既存의 知識을 忘却하고 새로 暗記해야 하는 二重 부담을 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오랜 言語習慣으로 인해 우리 發音을 쉽게 忘却할 수 있게 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다. 교육방법상 注音符號만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회화를 익힌 다음 中文으로 토를 다는 방법은 中語初學習者들에게 좋은 반응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1980년 筆者가 大學 1학년 초급 중어 시간에 실험 측정해 본 결과이다.

또한 일상회화 이외에 국제무역과 외교 사무상 실용을 위한 회화, 무역통신문, 외교문서를 다루는 商業中文, 公務用 中文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文字學 강좌를 통하여 字形의 變動에 따른 正誤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中國文字의 演變形成過程, 每字의 來歷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10億 中共 人口가 쓰고 있는 簡字體도 解讀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學術資料를 참고함에 있어 不便이 없게 해야 하겠다.

4. 卒業生에 漢文·中語 教師資格證 부여

한 해 1,300여명씩 배출되기 시작하고 있는 中語中文學科 졸업생들의 進路는 현단계로는 樂觀的이 아니다. 이미 지적한대로 대학원 진학이나 留學의 문도 그리 넓지 않고 취업의 길도 좁고 험한 실정이다. 물론 2~3년 이내 情勢變化에 따른 各企業體를 비롯한 各機關에서 중국어문학과 인재를 데기 必要로 하리라 기대하고는 있으나 매년 배출되는 2,000여 명의 인력이 제대로 취업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미 중·고교에 한문을 교육하고 있는데, 필요한 漢文教師는 전국 10여 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漢文學科 졸업생들에게만 漢文教師 자격증을

부여하지 말고 中語中文學科라 할지라도 필요한 科目의 學點을 履修했을 때는 中語教師 자격증과 동시에 漢文教師 자격증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中國語文學 專攻者들 속에는 우리의 漢文古典 연구와 번역소계에 공헌할 人材들이 또한 많이 培養되기를 기대하고 유도하며 教育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에서 中國語를 제 2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는 곳은 4개교에 불과하다. 漢字文化圈인 우리 나라에서는 日語나 獨·佛語보다 그 活用범위와 比重이 큰 것이 사실이면서도 중국어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동안 그럴 만한 理由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오늘의 與件은 變하고 있다. 계속 많은 高等학교에서 중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해 줌으로써 中語中文學科 졸업생의 進出의 길을 하나씩 넓혀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提議는 비단 중국어문학 전공자를 위하는 일이기 보다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전통사상 교육과 민족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中國語를 익혀 둔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5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한 사람과 대화를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中國語를 母國語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수는 50億이 못되는 세계인구 속에 10億이 훨씬 넘기 때문이다.

5. 共同研究와 相互支援教育

부족한 교수와 학술자료 및 시설 등을 보완하는 방법은 상호지원 교육 곧 專攻별로 몇 개 학과의 교수 사이에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2개 혹은 3개 학과가 특수 과목을 선정, 공동으로 수강케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이 방법은 분야별 전공교수를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상해 볼 만한 것이다. 이러한 협조체제가 이룩되면 자연 공동연구도 쉽게 진행 될 것이다. 실로 大海와도 같이 광범한 중국문학을 연구함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 많은 것을 다 연구하고 접하기는 어려운 만큼, 뜻을 같이하는 서로 다른 專攻 교수들이 各自의 전문분야를 연구하며, 상호 자료를 교환하고 저술함은 中國語 參考書한 권, 韓中辭典 한 권 퍼내지 못하고 있는 현

실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수의 전공은 세분화되고 학문은 더욱 깊고 넓어짐으로써 소기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상호간에 서로의 학문과 인격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겸허한 미덕이 선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V. 結 言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기술해 온 漢字를 세삼스럽게 外國 文字로 여기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常用하는 漢字는 민족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재승하는 데 그 어떤 文字가 대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言語文字 생활에 밀착되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고교에서 배우는 800~1800字的 漢字면 漢文學 專攻者 이외는 일상생활과 학문연구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中語 中文學은 주로 現代의 漢文 곧 白話文을 주로 교육하고 과거와는 달리 文字의 意義와 함께 中國인들이 使用하는 言語·文字의 發音을 익혀 會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순수학문 지도와 함께 실생활의 활용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語文學 교육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을 살펴 보고 그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 어느 학과의 교육도 그래야 하겠거니와, 中語 中文學 교육도 民族教育이라는 大前提가 先行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훌륭한 祖上의 思想과 文化를 繼承 發展시키는 데 있어 中語 中文學 교육이 기여하는 방향에서 실시되고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리의 漢文 古典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다.

대학에서의 中語 中文學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① 교수의 자질 향상 ② 우수한 학생유치 ③ 실용과 특성교육 ④ 졸업생에 한문·중어 교사자격 부여 ⑤ 공동연구와 지원교육 등의 방안도 중요하겠으나,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中國語를 채택하는 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 先賢들의 文集을 통하여 漢文을 익히는 과정에서 傳統의 人間教育이 併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漢文교육도 지금보다 強化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文教當局에 대하여, 좁아지고 있는 自由中國 留學의 길을 넓혀 주는 方法으로 兩國間에 체결된 文化協定에 따른 장학생 교환, 國費유학생 파견, 相對國의 外國留學生 制限規定의 완화를 위한 積極的인 政策支援을 期待한다. *